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5일 (음력 12월 20일) 월요일

‘늙어가는 한국’...2060년 고령화율 日 앞선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 보고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율이 오는 2060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복지포럼에 발표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일본사례의 시사점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율이 7%를 넘는 고령사회(aging society)를 거쳐 ▲2018년 고령율이 14%이상이던 고령사회(aged society)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21%이상, super

2025년 42.5%...일본 고령화 최단시간·속도 꺾듯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력부족 후유증 불가피 해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인구고령화율은 급속하게 상승해 2060년에는 일본을 앞서고 이같은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자 삶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보장 등 사회 전 영역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윤경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 용어로 ‘급격한 고령화’를 지목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넘는데 10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후 올해 고령화율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다.

보고서는 통계청 인구 추계를 통해 국내 고령화율은 2065년까지 계속 증가해 4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 때문. 고령화를 경험하는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0이하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국가는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량적 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노동력 평균연령은 2015년 40.3세에서 2030년에는 42.9세로 증가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 0.99%로 하락 ▲국민연금금은 2044년부터 수지적자, 2060년 적립기금 소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23년 적립금 소진 ▲치매고령자 2015년 65세이상 9.79%에서 2060년 16.74%까지 증가 등의 후유증도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고령자의 빈곤을 우려했다. 일본의 고령자가 비교적 안정적 경제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국내 고령자의 46.5%는 빈곤해 고령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 수립을 저출산계획과 별도로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년 베이비세대가 후기고령자인 75세이상으로 진입하고 고령화율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준비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시스



“올해도 입춘대길” 입춘(立春)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구례군 구례향교에서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입춘방 쓰기 체험행사가 열리고 있다.

‘두 쪽난 국민의당’ 광주·전남 정가 후폭풍

16명 중 10명 민평당·4명 미래당·2명 고심

정치적 공동체 지방의원들도 살 길 모색 분주

국민의당이 창당 2년 만에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으로 쪼개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정가와 6월 지방선거 대결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분당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6명은 정치적으로 크게 세 부류로 분화했다. 10명은 민평당 4명은 미래당, 2명은 고심 중이다.

박지원 전 대표와 6선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재선 의원인 장병완·황주홍, 초선 그룹인 김경진·최경환·박준영·윤영일·

이윤주·정인화 의원 등 10명이 ‘민평당 열차’에 몸을 실었고, 4선의 박주선·김동철·주승용, 재선 권은희 의원 등 4명은 미래당에 합류했다. 법조인 출신 송기석, 손금주(이상 초선) 의원은 중립코너에서 진로를 고심중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진로가 정해지면서 ‘정치적 공동체’인 지방의원들도 살 길을 모색하느라 분주하다.

민평당을 택한 경우 대부분 지역위원장과 한 배를 타지만 탈(脫) 호남 미래당을 선택한 지역에서는 당혹감과 민심이반론

속에 지역위원장에게 등을 돌리거나 무소속 등 ‘각자도생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대결구도에도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민주당 7명, 현 국민의당 2명, 정의당, 민중당 후보까지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링 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당 분당으로 민주당, 민평당, 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으로 선거구도가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당 후보로 거론됐던 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미래당 옷을 입고 출마할 지 관심사

가운데 “반(反) 안철수 정서가 반(反) 미래당 정서로 이어질 공간이 커 미래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노관구 전 순천시장, 민평당 박지원 의원, 미래당 주승용 의원 간 3자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민재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경선전에 뛰어든 경우 당내 빅 매치로 본선전도 예측불허가 될 공간이 크다.

여기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의석차가 4석에 불과한 점을 내세워 원내 1당 유지를 위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자체를 요구하고 나서 ‘전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진표는 매우 가변적이다.

최남규 기자



어물전 망신

사치현 청원지침 통영지침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과거 인연을 이야기하며 ‘제가 태형을 반대하지만 태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만만 안전 국장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당시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안전국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는 너한테까지 나가 굳이 얘기해야 되냐 이런 태도다. 저 태도는 그냥 장만도 저한테 답변을 저렇게 못 한다. 국회의원에게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하지가(가) 뻔이 든든하다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병우하고 수개월 동안 천 통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스시스



광주형일자리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